07-01호

Regional Economic Focus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3월 26일
ISSN 1976-0507 Vol. 1, No. 1

급성장하는 러시아 은행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이 광 우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kwlee@kiep.go.kr, Tel: 3460-1095)

▣ 2006년 은행 총자산이 전년대비 44.1% 증가하는 등 러시아 은행산업은 오일달러 유입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발맞춰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은행산업의 급속한 팽창 요인으로 소득 증가, 민간수요 증가, 유동성 증가, 그리고 은행의 신용 및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음.

▣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소매금융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아직 미성숙한 러시아의 은행산업은 중기적으로 빠른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금년 들어 러시아정부가 자국 은행산업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금년내 러시아의 WTO 가입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의 對러시아 무역·투자금융 및 기업금융서비스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성장세를 유지할 러시아 은행산업의 본격적인 개방에 대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러시아 은행산업의 구조

■ 러시아 금융산업의 선도업종, 은행산업

러시아 은행산업은 2005년 말 기준으로 금융산업 총자산의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 수는 2005년 말 기준으로 1,253개로서 총 금융산업 관련 기업의 42%를 차지하면서 금융산업의 선도업종 자리를 고수해 오고 있음.

표 1. 2005년 말 러시아 금융산업 자산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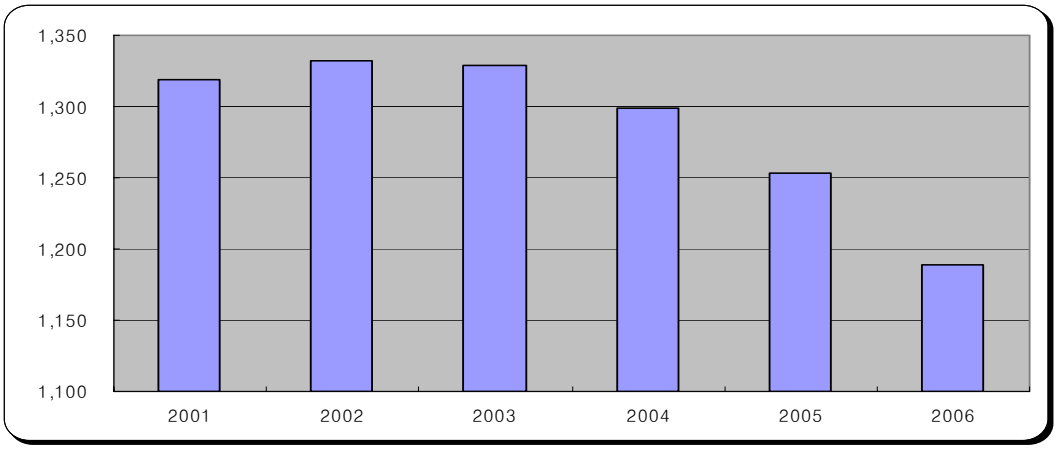
	회사(개)	자산 (십억 루블)	GDP 대비 자산(%)	금융산업 총자산 비중(%)
은행	1,253	9,750.3	45.0	89.3
보험사	1,075	585.0	2.7	5.4
민간 연기금사	261	344.0	1.6	3.2
단위투자신탁사	360	228.2	1.1	2.1
총계	2,949	10,907.5	50.4	100.0

자료: Bank of Russia(2006), *Banking Supervision Report 2005*.

■ 러시아 은행 수 추이

2000년 이후 은행에 대한 검열 강화로 자격에 미달하는 영세은행과 불법영업을 한 은행들이 퇴출당하면서 은행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은행산업의 빠른 팽창과 러시아정부의 은행산업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러시아 진출은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은행 수 추이



자료: Bank of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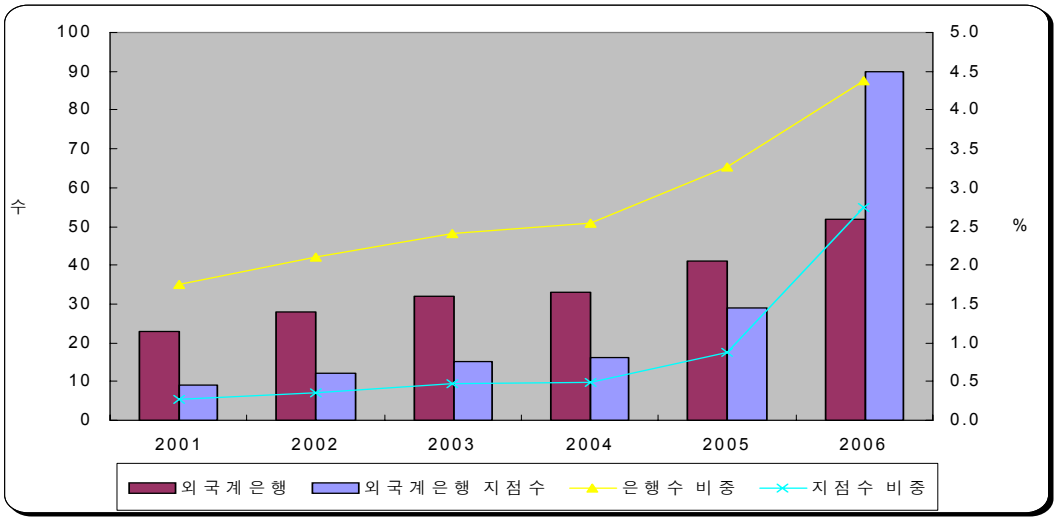
– 2007년 1월 기준으로 러시아의 은행 수는 1,183개로서 최근 5년간 약 11% 감소함.

○ 은행의 총 지점 수는 3,286개이고 이중 러시아의 최대 은행이자 국영은행인 Sberbank의 지점과 100% 외국인투자로 설립된 은행의 지점은 각각 857개(전체 은행의 26.1%)와 90개(전체 은행의 2.7%)임.

○ 러시아 은행이 해외에 설립한 지점은 2개로 아직 해외진출은 미약한 단계에 있음.

– 푸틴정부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러시아 은행 지분 획득, 외국계 은행의 부실 러시아 은행 인수 등을 장려하고 있음.

그림 2. 외국계 은행의 러시아 진출 추이



자료: Bank of Russia

○ 2007년 1월 현재 외국계 은행과 지점 수는 각각 52개, 90개로 외국계 은행의 진출은 동유럽보다 낮은 편임.

○ 그러나 2006년 외국계 은행은 11개 신규 은행 설립과 61개 지점 설치로 2000년 이후 가장 활발한 러시아 진출을 보였으며, 앞으로 러시아 은행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외국계 은행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International Moscow Bank(8위), Raiffeisenbank(9위), Citibank(14위), ABN-Amro Bank (30위), Home Credit and Finance Bank(32위), ING Bank(35위), Commerzbank(39위), Deutsche Bank(44위), Bank Societe Generale Vostok(46위) 등 9개의 외국계 은행이 자산순위 50대 은행에 포함되어 있음.

■ 러시아 은행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러시아 중앙은행은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서방의 러시아 은행 지분 참여를 장려하는 등 은행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러시아 은행산업은 구조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

- 중앙은행의 은행영업 조건 강화와 감독 강화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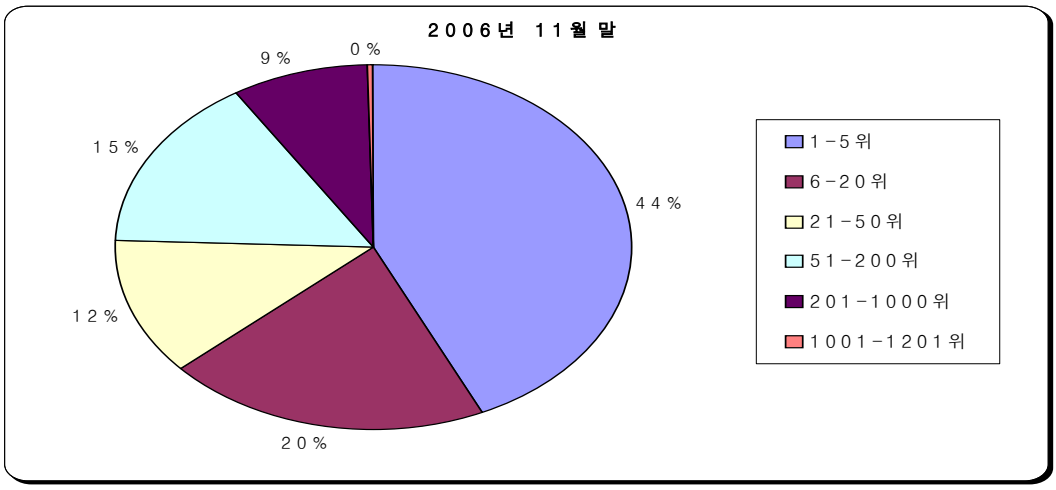
- 그러나 이중장부 작성 금지, 그룹의 내부자금 사용 방지, 자금세탁 방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이 일부 은행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

○ 은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감독활동을 벌여오던 안드레이 코즐로프 러시아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가 2006년 9월에 피살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 러시아 은행산업은 국영은행들로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인 51.6%의 은행이 모스크바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위 5개 은행의 자산이 전체 은행산업 총자산의 44%를 구성하는 극심한 자산집중 문제 등을 가지고 있음.

○ 러시아 은행의 자산 순위별 분포는 2000년 이후 변화가 없으며, 국영은행들로 이뤄진 자산집중 문제는 국영은행의 민영화와 영세은행들간의 합병이 활발해질 때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그림 3. 은행산업 총자산 중 순위별 자산 분포



자료: Bank of Russia

2. 러시아 은행산업의 급성장 현황

가. 은행의 자산 증가 추이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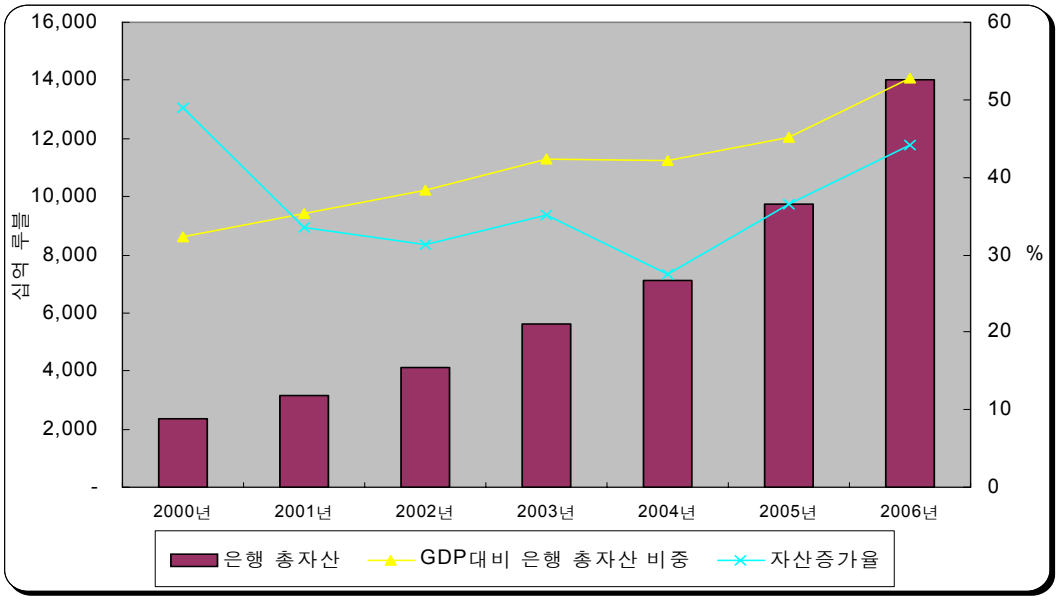
■ **은행의 자산 증가 추이**

2006년도 은행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44.1%의 높은 증가폭을 보이면서 2000년도 증가율인 48.9% 이후 최고 증가치를 기록함.

- 2006년 말 은행의 총자산은 14조 460억 루블로 국내총생산 대비 52.8%를 기록함.

○ 국내총생산 대비 은행 총자산이 8% 포인트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그림 4. 러시아 은행의 총자산 증가 추이



자료: Bank of Russia

-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러시아 은행의 총자산은 2조 3,625억 루블에서 14조 460억 루블로 595%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 대비 은행 총자산의 비율도 32%에서 52.8%로 약 21% 포인트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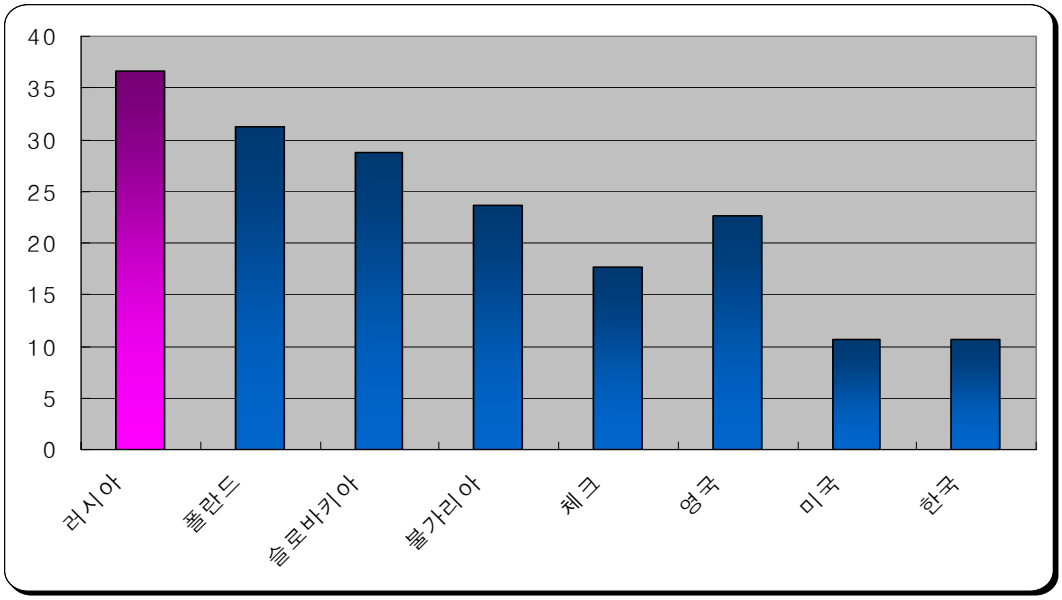
○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이 같은 기간 7조 3,056억 루블에서 26조 6,210억 루블로 364% 증가한 데 비하면 은행산업의 성장은 이보다 1.6배 빠른 것임.

- 러시아 은행산업의 성장은 영국, 미국, 한국 등 주요국보다 빠르며, 특히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체크 등 동유럽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총생산 대비 은행산업의 총자산 비율은 2005년 현재 45%로서 헝가리(67%), 폴란드(52%), 체크(93%) 등 중부유럽국가들보다 작게 나타나 아직까지 러시아 은행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2005년 러시아, 동유럽 국가 및 주요국의 은행 총자산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은행의 자산 증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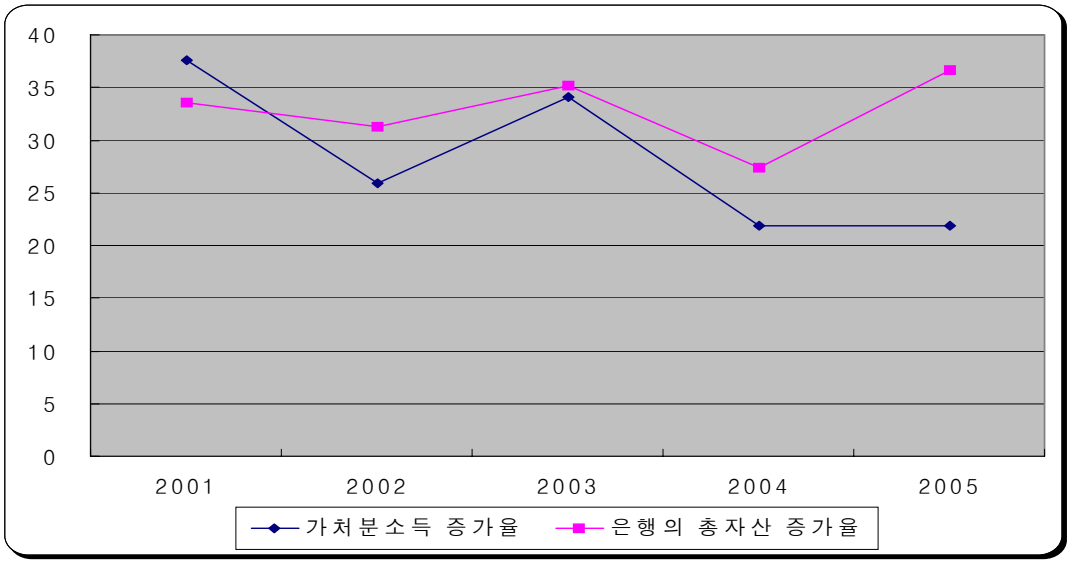
은행산업의 성장원인으로 빠른 소득 증가, 민간수요 증가, 오일달러 유입을 통한 유동성 증가, 그리고 은행의 신용 및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음.

- 러시아는 2005년까지 5년간 연평균 6.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러시아 국내총생산의 급증은 전체 수출의 63%를 차지하는 에너지의 국제가격 상승과 국내총생산의 50%에 이르는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그림 6.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Bank of Russia; Global Insight.

- 가처분소득 증가, 민간소비지출 증가 등의 경기호조와 유동성 증가가 은행의 여수신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

○ 2001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한 민간소비지출은 유동성 증가와 맞물리면서 민간수요를 증가시킴.

○ 가처분소득은 2005년 현재 12조 1,048억 루블로 지난 5년간 245% 증가함.

- 러시아 중앙은행은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영세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과 은행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에 대한 자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이끌어왔음.

○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국제금융보고기준(IFRS) 도입, 최소자본금제 도입, 예금보험제도 확대, 외국계 은행의 참여 확대, 국영은행의 민영화 추진, 新BIS 기준 적용 검토 등 일련의 개선조치를 취하면서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함.

나. 은행의 여수신 증가 추이

■ 은행의 수신 증가 추이

급속한 경제발전, 소득 증가, 은행의 신뢰 회복 등에 따라 러시아 은행의 수신활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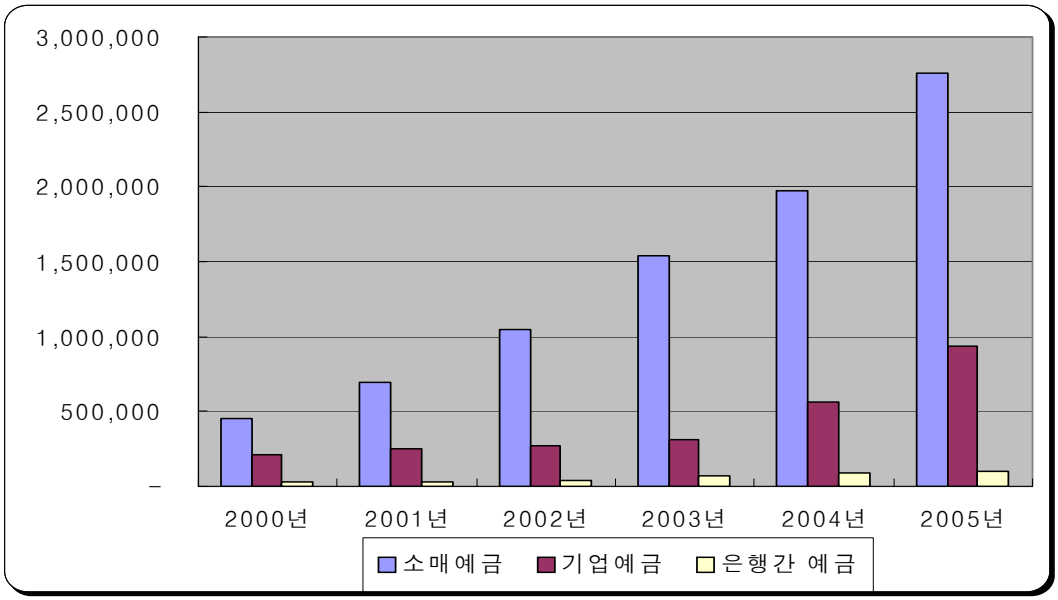
- 2006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은행의 총수신액은 5조 2,865억 루블이며,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수신액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함.

○ 소매예금은 3조 4,961억 루블로 27% 증가하였으며, 기업예금은 1조 4,922억 루블로 59% 증가함.

○ 은행간 예금은 2,983억 루블로 195% 증가하였으나, 은행의 총수신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5% 선에 머물면서 여전히 다른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음.

그림 7. 러시아 은행의 수신구조 추이

(단위: 백만 루블)



자료: Bank of Russia

- 2001년부터 2005년 말까지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러시아 은행의 수신고는 6,958억 루블에서 3조 7,919억 루블로 444% 확대됨.

○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예금은 4,532억 루블에서 2조 7,545억 루블로 508% 증가하였고, 기업예금은 2,120억 루블에서 9,364억 루블로 342% 증가하였으며, 은행간 예금은 306억 루블에서 1,010억 루블로 230% 증가함.

○ 2005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 은행의 수신구조는 소매예금이 73%, 기업예금이 25%, 은행간 예금이 2%로 구성됨.

■ **은행의 여신 증가 추이**

러시아 은행의 여신활동도 수신활동과 마찬가지로 민간수요 증가, 유동성 증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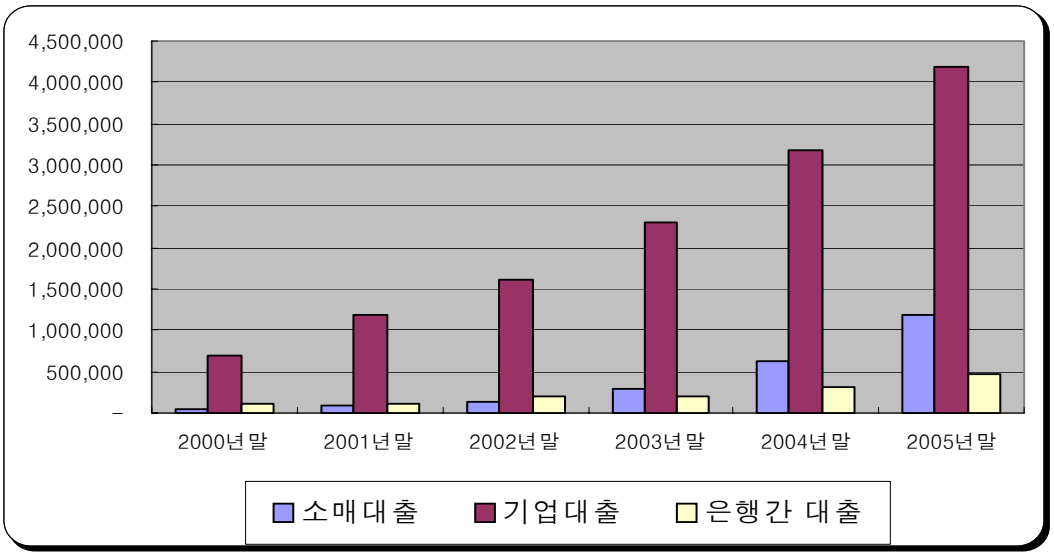
- 2006년 10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은행의 총대출액은 7조 8,502억 루블이며,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대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함.

○ 소매대출은 1조 8,742억 루블로 59% 증가하였으며, 기업대출은 5조 3,579억 루블로 28% 증가함.

○ 은행간 대출은 6,182억 루블로 31% 증가하였으나, 러시아 은행의 총대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머물러 다른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음.

그림 8. 러시아 은행의 여신구조 추이

(단위: 백만 루블)



자료: Bank of Russia

- 2001년부터 2005년 말까지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러시아 은행의 총대출액은 8,463억 루블에서 5조 8,384억 루블로 590% 증가함.

○ 소매대출은 482억 루블에서 1조 1,793억 루블로 2,346% 증가하였고, 기업대출은 6,965억 루블에서 4조 1,879억 루블로 501% 증가하였으며, 은행간 대출은 1,015억 루블에서 4,713억 루블로 364% 증가함.

○ 러시아 은행의 여신구조는 2005년 말 기준으로 기업대출이 72%, 소매대출이 20%, 은행간 대출이 8%로 구성됨.

3. 러시아 은행산업의 전망

■ 지속성장 예상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러시아 은행산업은 경제성장에 발맞춰 향후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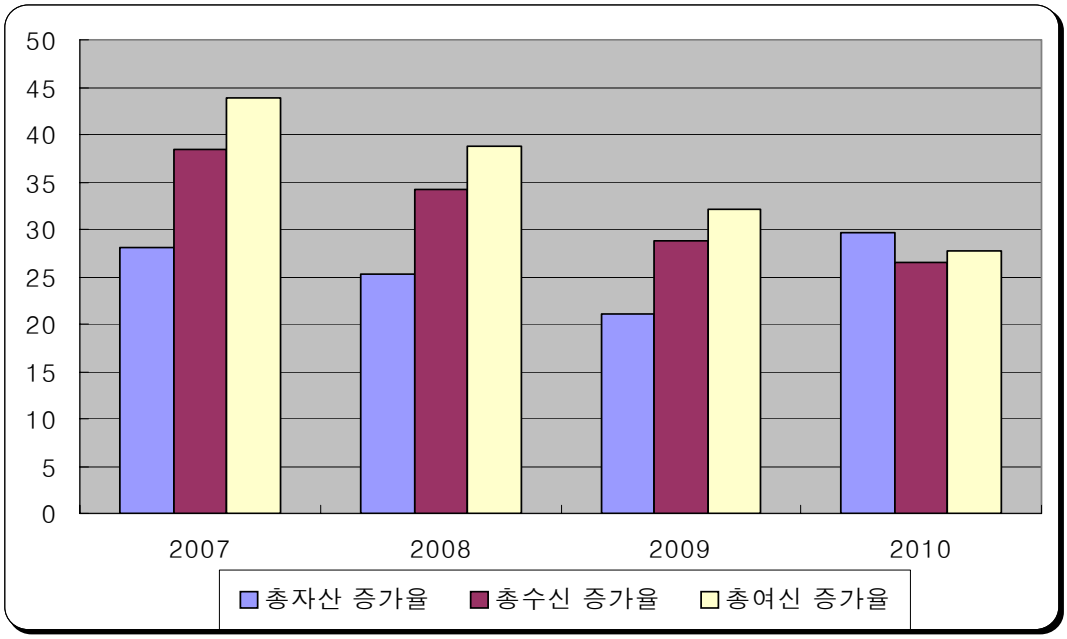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및 민간소비지출 증가와 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 은행산업의 빠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09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은행 총자산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함.

○ 독일 통합금융그룹(Deutsche UFG)은 2015년의 러시아 은행 총자산 규모가 지금보다 10배가량 늘어나 국내총생산 대비 8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그림 9. 러시아 은행산업의 발전 전망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Deutsche UFG Research

- 러시아 정부는 총수출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의 가격폭락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 러시아경제의 6%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6년 국내총생산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제성장률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부총리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14위에서 10위로 성장한 러시아경제가 조만간 세계 6위에 오를 것이라 주장함.[1)]

■ 소매금융 활성 예상

최근 3년간 90%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소매대출이 향후 러시아 은행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러시아 은행의 총대출은 25%로서 이는 동유럽의 50%, 라틴아메리카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

- 물가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2005년에 12.7%를 기록하고 2006년에는 9.7%로 추정되는 등 높은 물가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신보다 여신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은행의 여신활동은 그동안 국영기업이나 재벌그룹에 대한 자금공급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소매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 소매대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대부분 개인대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향후 러시아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동차 구입 증가로 인해 개인에 대한 모기지론과 오토론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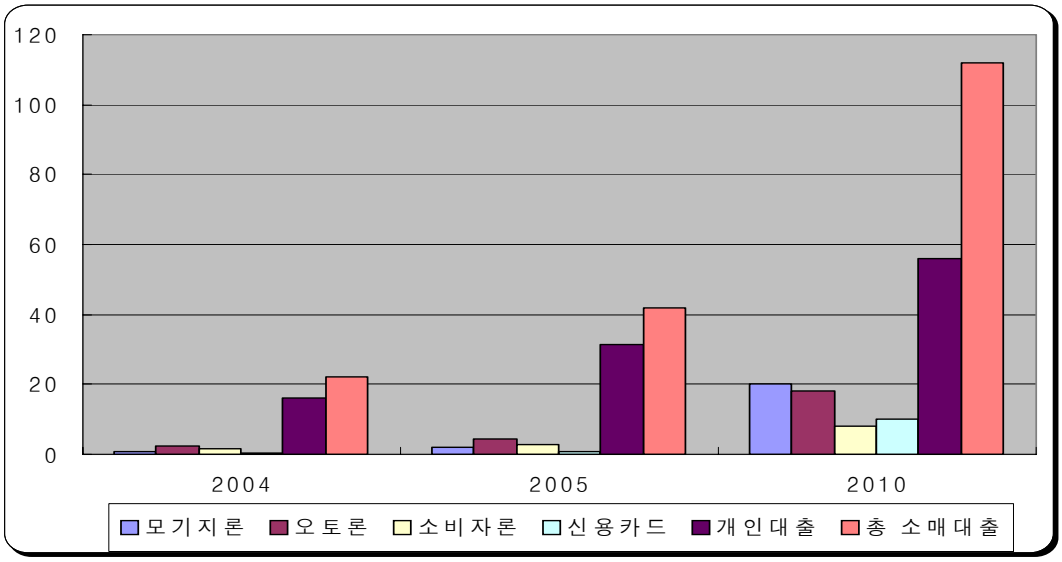
○ 러시아에서 시작단계에 있는 모기지론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장기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오토론, 신용카드와 함께 여신활동의 유망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현재 모기지론은 국내총생산 대비 0.3%로 규모가 매우 작으나 2010년에는 10배로 증가한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1) 2006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8,269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그림 10. 러시아 은행의 소매대출 구조와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ank of Russia; Alfa Bank estimates.

■ 외국계 은행의 진출 확대 예상

최근 러시아는 해외주식시장에서의 러시아 주요은행 기업공개(IPO), 외국자본의 자국은행 지분 참여 간소화, 외국계 은행의 지점 설치 검토 등 단계적으로 개방을 준비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러시아 은행업에 대한 외국계 은행의 참여는 신규 설립만 허용되고 지점 설립은 금지되고 있음.

○ 러시아에서의 은행 신규 설립은 외국자본 100% 투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합작회사일 경우 지분 50%의 참여로 제한되고 있음.

- 제한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러시아 지점 설립은 금년에 예정된 WTO 다자간 협상이나 WTO 가입 이후로 예정된 OECD 가입 협상 시점에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르면 금년 5월에 OECD 가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러시아 1, 2위 은행인 Sberbank와 VTB 은행이 해외자본 확보와 은행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주식공개상장(IPO)을 계획하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은 2월에 Sberbank 76억 달러어치 주식을 런던증시에 상장하고 5월에 VTB 은행의 45억 달러어치 주식을 런던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며, 다른 은행들도 해외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음.

- 러시아 은행에 대한 지분 참여는 전체 지분율의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년부터 외국자본의 러시아 은행 지분 취득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러시아 은행업 지분 확보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외국인의 모든 러시아 은행 지분 취득에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완화하여 외국자본 투자액이 은행자본의 1%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2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음.

- 지난해부터 시행된 러시아 단기국채 상환자금의 은행지분 매입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은행의 최소자본금 500만 유로 설정 등을 통해 중·소형 부실은행에 대한 외국계 은행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신용도와 위험분석능력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소매금융시장을 목표로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됨.

4. 결론 및 시사점

■ 러시아 은행산업의 지속성장 예상

경제성장과 소매금융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아직 미성숙한 러시아의 은행산업은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폭락의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러시아정부는 향후 3년동안 러시아 경제성장 6%대 지속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증가추세에 있는 개인대출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모기지론 및 오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소매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은행산업 개방과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 필요**

금년내 러시아의 WTO 가입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의 對러시아 무역·투자 금융 및 기업금융서비스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성장세를 유지할 러시아 은행산업의 본격적인 개방에 대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수출액이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36%를 기록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의 31번째에서 12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함.

- 러시아는 한국의 31번째 해외투자 대상국이나, WTO 가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러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해외투자는 누적기준으로 신고건수 260건, 신고금액 6억 2,692만 달러를 기록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對러시아 투자금액은 누적 신고금액 기준으로 각각 60%, 38%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러시아시장 진출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가 현지 금융여건의 열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표 2. 현지진출 기업 및 교민의 불편사항과 우리나라 은행 진출시 기대효과

구 분	러 은행과 거래실태 및 불편사항	우리나라 은행 진출시 기대효과
대 출	기업대출시 대출담보를 200% 요구 수준으로 요구하고, 대출금리가 13-15% 수준에 달하는 등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대출이용이 매우 어려움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 및 수수료 적용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현지금융 제공 활성화 기대
신용장거래	신용장 발행시 수입보증금을 100% 적립해야 하고, 추가로 신용장 발행 시 수수료 8% 부담해야 하며, 러 은행 발행 신용장은 신용도가 낮아 추가로 외국계은행의 Confirm을 받아야 함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장 발행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수입보증금 100%는 러시아 정부 규정에 따른 것임), 추가 Confirm이 불필요하여 우리상품 수출시 신용장 거래 활성화 기대
송금·예금	러 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계좌개설 및 거래시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며, 수수료 부담이 높아 은행예금 대신 외화현금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큼	신속·정확한 한국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우리기업과 교민이 현지 계좌 개설을 통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자료: 주러시아 재경관 정책보고(2005), 『우리나라 은행의 대러시아 진출 검토』, P. 13.

제공할 우리나라 은행의 신규법인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은행산업의 미발달로 입출금, 송금, 대금결재, 대출 등 기업금융서비스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이 현지에서 영업하는 데 아직까지 다소의 애로를 겪고 있음.

- 금년에 계획된 우리나라 은행업의 러시아 진출계획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의 모스크바 현지법인 설립임.

○ 1998년 2월에 조흥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중 최초로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폐쇄한 바 있으며, 현재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이 모스크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러시아 은행산업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은 대부분 유럽계 은행들로 아시아계 은행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약함.

○ 일본의 경우 지난해까지 미치노쿠 은행과 미쓰이-쓰미모토 은행 두 곳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해왔으며, 금년 상반기에 미쓰비시 도쿄 은행과 미즈호코페레이트 은행이 모스크바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임.